



보도 일시	2022. 9. 4.(일) 15:00	배포 일시	2022. 9. 4.(일) 15: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24)

## 장애예술인 특별전, 개막 후 3일간 7천명 넘게 다녀가

- 참여 작가와 함께 하는 <작가와의 만남>에 관람객들 큰 호응, 작가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으로
- 작품 판매를 알리는 '빨간 딱지'도 붙기 시작해 현장 분위기 고무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번째 행사로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 개막 후 3일 동안 7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9월 4일(일), 밝혔다. 주말인 3일(토)과 4일(일) 이틀 동안에는 이번 특별전에 참가한 장애예술인을 초청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어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손영락 작가의 수묵담채 「뱃」을 시작으로 작품 판매를 알리는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다른 작품에 대한 구매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전시장 현장과 작가들은 한층 더 고무된 분위기이다.

3일(토)에는 이다래, 박은실 작가의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됐다. 작가의 작업실에 갑자기 얼룩말이 등장한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2014년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이다래 작가는 어머니와 함께 자리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릴 때 그림 소재가 생각나지 않으면 홍학, 원숭이 등을 보러 서울대공원을 자주 방문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색감이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는 이다래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가을 숲 속의 사슴들>에서도 동산을 연보라색으로 표현해 자신만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나타냈다. ▲ 전라남도 진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진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실 작가는 유년시절 진도의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아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 꾸준히 독학으로 그림을 그려왔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관람객과 나누었다.

4일(일)에는 한부열 작가와 권한솔 작가가 관객들을 만났다. 한부열 작가는 발달장애미술인으로서 대한민국미술대전 출품 1호, 수상 1호(2022년

제4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 한국미술협회 정회원 등록작가 1호 등 수많은 '1호' 타이틀을 갖고 있다. 30cm의 자와 펜을 가지고 밑그림 없이 한 번에 그림을 그려내는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의 화풍으로 알려져 있다. ▲ 권한술 작가는 동양화와 서양화를 융합한 자신만의 독특한 분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작가로서 고양이나 꽃 등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표현한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전시 종료 전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총 4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10일(토)에는 최지현 작가와 양희성 작가, 11일(일)에는 고정심 작가와 김채성 작가가 함께한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춘추관을 방문한 김명주 씨(여성, 50대)는 “장애인분들이 그린 것인 줄 몰랐는데 전시 설명을 보고 알았다.”라며 “이런 뜻깊은 전시를 청와대를 관람하면서 볼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람객 김호진 씨(남성, 40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실이었던 곳이 전시장으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이 멋있다.”라며,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는 “이번 전시회는 어렵고 소외된 환경에서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해온 장애예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춘추관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작가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작품은 주저 없이 구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말하며 활짝 웃었다.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9월 19일(월)까지 열리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 관람객의 전시장 이동과 관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070-7668-1690)로 관련 문의를 하거나 전시관람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 따로 붙임 1. '작가와의 만남' 참여 작가 전시 작품  
2. 전시장 현장 사진